

AI 방역대응 평가 및 개선점 모색 좌담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평가 필요



연이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금산업계, 방역 당국 모두가 힘든 상황으로 전문가들 모두 올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예측하고 있다.

AI 방역이 시스템화되면서 과거보다는 AI 발생수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오리사육제한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축산신문은 지난 8월 30일 서울역 KTX1 회의실에서 학계, 가금단체, 정부, 농협, 지자체 담당자들로부터 AI 방역 대응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에 대해 들어보는 좌담회를 실시했다. 각계의 전문가들과 생산자단체장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이날 좌담회 내용을 살펴보자.

FOCUS



❖❖ **강민 전북대학교 가금류질병방제연구센터 교수** 규모 농장에 대한 예찰이 잘되고 있다. 이제는 소규모 농장에 대한 관리 및 예찰 강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민간에 병성 검사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 AI 예방으로 백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장** 과거에 경기도에서 백신 도입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 AI 백신 실패에 대한 문제 때문인 듯 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백신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모니터링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오리사육제한, 일명 휴지기와 관련해 말하고 싶다. 과거와 달리 정부가 휴지기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다. 이에 따라 AI 발생 수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살처분 속도도 빨라 AI 종식도 빠르게 오는 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결국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가 교육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사육제한에 의존해 박멸하는 AI 정책을 펼칠 것인가. 산업의 발전을 고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육제한으로 겨울에 오리 사육수 마릿수가 너무 줄어들어 수급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산업의 발전과 방역을 함께 고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AI 검사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간이키트를 사용해야 한다. 살처분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방식은 바이러스가 사멸이 안 돼 재발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처리 방식을 바꿔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가금 농가의 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방역당국이 알았으면 좋겠다. 규제만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살처분 매립비용과 관련해 계열사 부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 **지용현 충북도청 동물방역과장** 살처분 매몰 비용과 관련해 계열사 부담은 직영 농장 매몰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시작되었다. 농가가 과거에 비해 방역의식이 높아졌고 수평 전파가 줄어든 것은 맞다. 충북도는 축사마다 다니는 차량의 도로를 지정해 적극 소독하고 있다. 휴지기제는 충북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노후화된 농장은 현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오리농가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AI 방역 시스템화...과거보다 발생 횟수 줄어
사육제한 여파로 수급불균형 등 심각한 문제

백신 모니터링-바이러스 사멸 근본대처 필요
노후농장 현대화-클린존 사업 출구전략 검토



❖ 이성호 전북도청 동물방역과장 전북도는 중추의 입식을 10월 전에 완료하고 난좌는 해당 지역 것만 사용하도록 한다. AI 방역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적용 중이다. 우리도 언제까지 휴지기 등 규제와 살처분 등의 방역을 해야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발전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례로 전북도는 오리사육 농가 클린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료빈은 외부로 빼고 축사 옆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고 샤워실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거점소독시설과 관련해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지만 운영비가 많이 들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 이영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자가 메신저 예찰시스템을 도입하여 농가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상 검사시 체혈에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컨트롤 타워인 기관장이 비상임이고 직원 처우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전세우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장 AI 방역정책에 시행 착오가 있었지만 체계화 되었고 ASF 방역에도 AI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농협에서도 AI 방역을 위해 휴일에도 방역 차량을 운영 중이고 운영비가 높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 김용상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오늘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SOP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